

문화유산 품고 있는 천년고찰 '내소사'

부안 내소사 대웅보살 관음보살 벽화·설선당과 요사,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지정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부안 내소사 대웅보살 관음보살 벽화(국가유산청고시 제2026-0079호)와 부안 내소사 설선당과 요사(국가유산청고시 제2026-0083호) 등 2건이 각각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부안 내소사 대웅보살 관음보살 벽화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신규 지정된 부안 내소사 대웅보살 관음보살 벽화는 부안 내소사의 주불전(主佛殿)인 대웅보전의 후불벽 뒷벽에 그려진 벽화이다.

후불벽 뒷벽에 표현된 이 작품은 위쪽에 5개, 아래쪽에 4개의 셋기둥을 설치해 벽체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흠을 발라 화면을 미려한 뒤 그 위에 직접 그린 것이다.

이 벽화의 내용은 화엄경 입법계품에 근거하며 머리에 쓴 보관까지 백의(白衣)를 걸친 백의관음보살이 보타라기산 암벽에서 선재동자를 맞이하는 모습으로 표현됐다.

화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음보살은 유희좌(遊戯坐)로 앉아 있으며 보관 중앙에 신광(身光)을 갖춘 인상의 아미타화불이 표현돼 있는데 이는 불설관무량수경(佛說觀無量壽經)에서 설명하고 있는 관음보살의 도상적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

관음보살 보관의 화문 중앙에는 태극문이 시문돼 있는데 보관에 태극문을 그려 넣은 것은 의겸(義謙) 화파가 제작한 개안사 괘불, 무량사 아미타여래삼존도 등에 표현된 것과 같아 내소사 관음보살 벽화도 같은 화승 집단이 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 /부안=김석진 기자

내소사 관음보살 벽화의 양식과 세부 표현 방식 역시 위 작품들과 흡사함을 이러한 추정 을 뒷받침한다.

부안 내소사 설선당과 요사는 임진왜란 이후 1640년(인조 18)에 내소사를 증축할 당시 건립 했으며 1821년(순조 22)에 수리가 있었고 1893년(고종 30)에 요사를 증축한 것으로 승려들 생활공간의 변화형태와 모습을 현재까지 유지 하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돼 국 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부안 내소사 설선당과 요사는 'ㄷ'자형 평면 으로 설선당은 정면 6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 이고 전체 ㄷ자형 중에서 가장 먼저 건립됐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산중생활의 변화에 따라 양한 기능을 수용한 공간구성 방식과 자연지 형을 이용하면서도 위계적 구성을 온전하게 갖추고 있어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사찰건 축으로 평가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100년 전 한반도 물길 품은 생태 기록 보고

완주 삼례책마을 책박물관, '만경강 유리물고기 - 일제강점기 어류 사진전' 개최

완주군 삼례책마을 책박물관(관장 박대현)이 10일부터 오는 10월 19일까지 '만경강 유리물고기 - 일제강점기 어류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유리물고기는 1927년부터 1942년 사이 조선총독부 수산시험장에서 근무한 일본 어류학자 우치다 게이타로와 한국 최초의 어류학자 정문기 선생이 한반도 어류의 생태를 조사하며 촬영한 희귀 연구 기록물 1,080점 중 생태사적 보존 가치가 돋보이는 200여 점이다.

이 유물들은 유리판 위에 감광유제를 입혀

제작한 초기 사진 매체로, 사진 필름이 대중화 되기 이전 학술 조사와 정밀한 현장 기록에 폭 넓게 사용되었다. 해당 자료는 당시 한반도 어 류 분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조선어류지』(1939) 간행의 뼈대가 되었으며, 이후 정문기 선생이 보존하여 『한국어도보』(1977)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표본 전시를 넘어, 근대 학술조사의 치열한 현장과 당시 한반도 수생 태계를 고스란히 담아낸 시각 사료로서 중대 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전시명에 쓰인 '만경강'은 특정 수계에 국한

되지 않고 전북 지역 하천과 호수의 생태적 상징성을 폭넓게 내포한다. 동진수리조합 저수지 유입 수계에서 채집된 섬진강 대농갱이와 진안의 감돌고기 등 지역 물길의 어류 기록을 통해, 한국 어류 연구사와 지역 자연환경의 접점을 깊이 있게 조명한다.

더불어 한 세기 전 근해에서 촬영된 뱀상어, 표범상어 등 희귀 해양 생물과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보호받는 감돌고기의 과거 모습은 지난 100년간 급변한 생태 환경을 입증 하는 생태사의 결정적 증언이다. 여기에 강 주변 서민들의 삶과 풍습을 생생하게 기록한 일 제강점기 생활사 사진엽서 50여 점이 함께 전 시되어, 수중 생태계와 육상 생활 문화의 상호 연관성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북 K-POP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는 글로벌 K-POP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국제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8월 15일까지 '2026 전북 K-POP 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전북 K-POP 아카데미는 지난해 처음 운영돼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국내외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참가자들은 함께 생활 하며 K-POP 교육과 공연, 전북 문화체에 참

여해 K-POP은 물론 전북의 문화와 관광을 세계에 알리는 민간 문화교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모집 대상은 K-POP에 관심 있는 국내외 청소년이며, 외국인 15명과 내국인 6명 등 총 21명을 선발한다. 교육은 오는 9월 5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SNS(인스타그램)와 온라인 신청

서를 통해 가능하며, 전문 심사단이 서류와 영상, 인터뷰 및 라이브 테스트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8월 중 최종 참가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발된 참가자들은 보컬과 댄스, 퍼포먼스, 레코딩, 뮤직비디오 제작 등 K-POP 제작 전 과정을 실습 중심으로 배우게 된다. 또한 전북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귀국 후에는 전북을 알리는 글로벌 문화홍보대사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이만호 기자

클래식·재즈 함께하는 열린음악회

부안군, 콘사노체임버오케스트라 '열린음악회 장사익&김주환 밴드' 개최

부안군은 오는 17일 오후 7시 30분 부안 예술회관 공연장에서 2026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콘사노체임버 오케스트라의 '열린음악회 장사익&김주환 밴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부안예술회관 상주단체인 콘 사노체임버오케스트라가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위해 마련한 특별한 무대로 클래식 재즈가 어우러지는 품격 있는 음악회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레너드 번스타인의 '캔디드 서곡'으로 막을 올리며 김주환 밴드가 'The Girl from Ipanema', 'My Way' 등 재즈 명곡을 선사한다.

이어 대한민국 대표 소리꾼 장사익이 '절레꽃', '꽃구경', '남은 먼 곳에' 등을 특유의 깊이 있는 목소리로 들려주며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공연은 만 7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관람료는 5000원으로 국가유공자와 다자녀가정은 5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예매는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부안예술회관 1층 사무실에서 현장 예매 200석과 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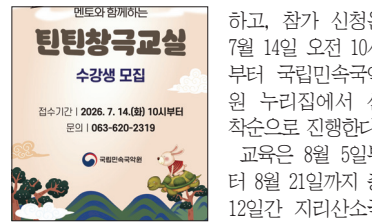
캐팅크 299석 등 온·오프라인 동시 오픈 판매하며 공연 관련 문의는 콘사노체임버 오케스트라(010-7560-9218)로 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튠틴창극교실 참가자 모집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교 대상 2026년 여름방학 청소년 국악강좌 '튠틴창극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

튠틴창극교실은 어린이들이 판소리 주요 바탕인 춘향가, 흥보가, 수궁가, 심정가의 눈대목을 중심으로 발성·호흡, 장단, 소리와 대사, 역할별 장면 구성, 무대 동선 등을 단계적으로 익히며 창극의 매력을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1~6학년으로 정원은 총 20명이며, 저학년과 고학년의 고른 참여를 위해 1~3학년 10명, 4~6학년 10명으로 모집



하고, 참가 신청은 7월 14일 오전 10시부터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8월 5일부터 8월 21일까지 총 12일간 지리산소극장에서 운영, 이후 8월 22일 오후 3시 수료발표회를 개최해 참가 학생들이 교육 기간 배운 창극을 무대에서 선보인다. /남원=김기두 기자

여름방학, 익산 백제문화체험관서 '백제랑 놀자'

익산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이 함께 백제 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익산시는 백제문화체험관에서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9일까지 여름방학 가족 체험 프로그램 '백제랑 놀자'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백제인의 일상문화인 다도와 문화 강국 백제를 꽃피운 장인들의 뛰어난 기술을 체험 중심으로 풀어나 백제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오전에 백제의복을 입고 백제의

다도를 체험하며 당시 생활문화를 살펴본다. 오후에는 왕관과 석탑 등 백제를 대표하는 문화유산과 공예품을 직접 만들어 보며 백제 장인들의 섬세한 기술과 창의성을 경험하게 된다.

프로그램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백제문화체험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백제문화체험관(063-836-5270)으로 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들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